조계종 제8기 법계위원장에 무관 스님

입적한 종진 스님 후임으로 7월 10일 선출



지난 4월 30일 입적한 조계종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 후임으로 무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회의를 열고, 제8기 위원장으로 무관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했다. 무관 스님은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4월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4월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종사법계를 품수했다.

무관 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석사 졸업했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임원과 단일계단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 전계3사, 구족계 수계산림 교수아사리, 제8·10대 중앙종회의원, 교육원 교재편찬위원장, 총무원 총무부장, 의제실무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계단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중진 "편백운 총무원서 나가라"

원로회의·중앙종회 등 前집행부 비판 결의문 채택

"종헌종법에 의거한 적법절차에 따라 불신임된 편백운 스님은 즉각 총무원사에서 퇴거하라."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선출에도 전임집행부가 총무원사를 비우지 않은 채 폐쇄 입장을 취하자 종단 원로 등 중진스님들이 전임자들의 퇴거를 촉구했다.

태고종 원로·중진스님들 150여 명은 7월 10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태고종 종단 원로 중진 간부스님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출범한 27대 집행부를 지지하는 한편 제26대 집행부의 원만한 퇴진을 요구했다. 회의에는 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중앙종회, 호법원, 지역종무원, 각급 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종단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현안 타개를 논의하는 허심탄회한 자리"라며 "태고종의 본래면목을 되찾고 새로운 종단의 내일을 열어가는 데 힘과 원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명 스님은 이와 함께 정상적인 종무집행을 위해 임명한 부장단을 소개했다. 현재까지 임명된 부장은 총 4명으로 총무부장 도성 스님, 교무부장 정안 스님, 재경부장 진성 스님, 규정부장 법해 스님이다.

참석 대중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편백운 집행부에 △총무원사 퇴거 △종도들에게 참회 △종단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종단은 제27대 총무원장으로 호명 스님을 선출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총무원장이 종단 사태를 잘 수습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며 "아직도 편백운 스님은 자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총무원청사를 폐쇄한 채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편백운 스님의 농단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하반기 일정 시작

강좌·순례형 등 교육 '다채'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의 승려연수교육 하반기 일정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연수 교육은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자원봉사활동 △인증교육 연수 △강좌·순례형 연수로 나눠 진행된다.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은 24곳이 전법교화활동을 이어간다. 자원봉사활동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교구본사 산하시설 등 총 191개 기관에서 시행하며, 인증교육 연수는 43개 기관에서 진행한다.

강좌형·순례형 연수는 24개 과정이 이뤄진다. 인문사회과정 중 '환경·생태문제에 불교에 답하다'는 장소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으로 변경해 진행한다. 또한 30년차 이상의 종사·명덕스님들을 위한 '종단최고지도자특별과정'도 지난해에 이어 제주도에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이젠 해외서 먼저 찾는 한국불교문화"

불교문화사업단 해외홍보 15년… 전 세계 감동 확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본격적인 해외홍보에 나선지 15년을 맞았다. 그 결과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은 이제 해외에서 먼저 찾는 명실상부한 불교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구권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지역을 넓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7월 9일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년간의 홍보성과와 올해 하반기 계획 등을 이 같이 발표했다.

문화사업단은 2005년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 첫 참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국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홍보했다. 특히 해외홍보의 본격적인 시작은 2010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회 한국 사찰음식의 날' 행사로 평가된다. 당시 여행업계 관계자와 정관계·문화계 인사, 유명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설명회와 사찰음식 강연 등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들이 대거 참여, 한국불교의 정신과 가치를 알리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이후 문화사업단은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등에서 한국문화원과 연계해 각종 홍보행사를 이어왔다.

원경 스님은 "처음 해외홍보에 나섰을 때는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해외에서 먼저 우리에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내던 쪽에서 이제는 받는 쪽이 됐다"고 설명했다.

2005년 베를린 관광박람회부터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우수성
16개국 30여 차례 걸쳐 홍보
최근엔 아시아권 홍보에 주력

이처럼 문화사업단은 각종 국제여행박람회와 관광박람회에 참가하고, 사찰음식 만찬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전 세계에 인지도를 쌓았다. 무엇보다 지난 5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된 사찰음식 만찬행사에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갑자기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조수미 씨의 참석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지난 5월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과 연계해 열린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홍보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발우공양을 체험하는 모습. 사진제공=불교문화사업단

조수미 씨는 사찰음식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면서 "8년 전부터 채식을 하고 있다. 낙원처럼 매혹적인 사찰음식을 맛보게 돼 영광"이라고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사업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다양한 해외홍보 행사를 계획 중이다. 9월 말에는 미국 LA에서 사찰음식 만찬행사를 진행하고, 'LA한인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현지 조리교육기관에서 사찰음식 강의도 열릴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10월 한국문화제'에 참가해 발우공양 워크숍과 템플스테이 체험 등을 진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원경 스님은 "아시아국가는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호감이 생기면 곧바로 관광을 온다. 이 점이 서구권과 가장 큰 차이"라며 "각 국가에 한국불교문화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현지문화에 맞는 홍보방법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경 스님은 이어 "템플스테이는 본래 해외에서 더욱 주목한 콘텐츠다. 해외홍보가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해 대비 참가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외부기관의 평가도 긍정적"이라며 "불교와 사찰음식이 가진 메시지도 각광받는다. 음식을 먹는 과정도 수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한국불교문화가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혁신과제 도출 '시동'

화합혁신위 기획위원 위촉
라운드 테이블 토론 나서

한국불교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에 조계종이 나섰다.

조계종 화합과혁신위원회(위원장 정념)는 7월 10일 서울 북촌 포레스트구구에서 16명의 출·재가 기획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출범에 앞서 '전환의 시대,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기획위원으로는 11명의 출가자와 5명의 재가자가 이름을 올렸다. 출가자는 △도선 스님(안산부곡종합사회복지관장) △만당 스님(불갑사 주지) △명법 스님(화엄탑사 주지) △법원 스님(중앙종회의원) △원명 스님(조계사 부주지) △일감 스님(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정운 스님(세원사 주지) △호산 스님(수국사 주지) △화평 스님(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효진 스님(반야정사 주지) △희유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장)이며, 재가자는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소장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이성운 의례실무위원회 위원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다.



7월 10일 조계종 화합과혁신위 기획위원으로 위촉된 출재가 인사들.

이날 기획위원들은 첫 일정으로 불교사회연구소의 '통계로 본 불교' 내용을 공유하고, 각자 위원별 발제에 나섰다. 이 자리서 위원들은 승가공동체 회복과 불법(佛法)의 현대화, 포교체계 재정비, 재정투명성 강화 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기획위원 도선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는 시대를 견인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 제3의 종교로 뒤처지고 있다"며 "시대에 맞는 승가공동체 정신을 되살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시대언어로 표현하면서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재영 교수는 "변화하는 시대상, 달라진 종교지형 등을 정리해 현대적 교판의 정립을 해야 한다. 계율의 혁신과 현대화도 마찬가지"라며 "승가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재가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때 전환의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기획위원들은 발제에 이어 △시대와 함께하는 교리 및 의례 △현대 승가공동체의 구현 △재가의 교육, 수행, 조직 △종단과 사찰 운영 △사회정의 실천 등 5개 분과로 나눠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계획을 세웠다.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는 7월 18일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연말까지 한국불교 혁신과제를 도출해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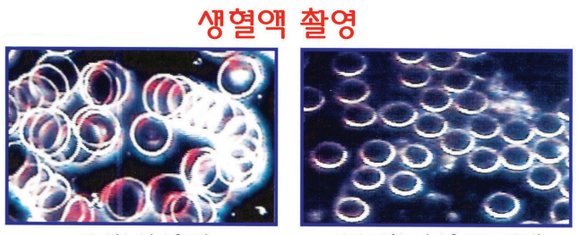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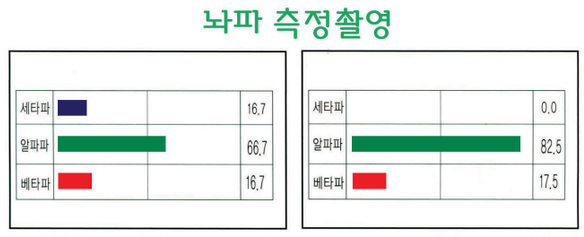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